

I. 통상현안정보

■ 유럽이 본 아시아 경제평가

- 독일은행은 최근 자체발간 주간지 Deutsche Bank Research(9.14)을 통해 2006년까지의 아시아 경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2006년에 아시아 경기둔화가 올 것이며, 그때까지 홍콩·싱가폴·말레이시아·태국·중국은 계속적인 고성장을, 한국·인도네시아·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2004-2006년중 빠른 속도로 성장

- 싱가폴은 SARS여파로부터 완전 회복되었으며, 홍콩·태국도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세계 IT 경기 회복과 신정부 출범으로 경기 호조 기회를 맞고 있음.
- 중국은 정부의 성장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년 여름에 거의 10%의 GDP 성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착륙이나 연착륙없이 8%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서는 특히 상품가격 급등과 지속적인 가격인상 압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석유·가스·철강·석탄·종이 및 금속스크랩 공급자들과의 장기 계약 체결이 중국에서의 사업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중국 정부의 성장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설득력이 없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국은 발전소와 고속도로 건설, 서부 개발, 교육시스템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필리핀·인도네시아는 더딘 성장

- 한국 경제의 전망은 불투명함.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투자가 정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2001/2002년의 신용카드 버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해줌. 아울러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결혼 및 출산율 감소, 북한과의 통일비용 등이 잠재적인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아시아 국가중 성장 의지와 저력이 높은 나라이므로 결국은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수년간의 개혁 여파와 대내외 부채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며 금년의 선거와 관련된 부패가 특히 금년 경제성장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82백만명의 영어 노동력(필리핀)과 막대한 천연가스 부존량(인도네시아)이 중국에는 이들 경제의 활로가 될 것으로 여겨짐.
- 일본은 지난 10년간의 구조조정 및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 소비자 및 기업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자신감 회복 및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

□ 2006년에 경기 사이클에 따른 아시아 전체적인 경기둔화가 예상

- 고유가 지속, 유럽 및 아시아 통화가 상향압력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주기를 감안할 때 2005년이 아닌, 2006년에 경기둔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이후의 전망

- 일본의 낮은 경제성장률, 미국 경제의 둔화, 고유가, 주식시장 침체, 지속적인 테러 위협 등이 향후 아시아 경제성장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임.
- 보수적이고 미국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미국인들은 금년 대선(11.2일)에서 부시 대통령을 재선시킬 것으로 예상됨. 재선된 부시 정부는 세율을 계속 인하할 것으로 점쳐지며, 결국 미국의 적자는 줄어들지 않아 미국의 장.단기금리 역시 계속 높아지고 유럽 및 아시아국가에 대한 환율 조정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고가를 유지해 WTI 가격은 향후 15개월 동안 배럴당 40달러를 유지할 것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에너지 수요가 중국·미국·인도 등 에너지 효율성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 에너지 수요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임.
 - 주요 산유국에 대한 정치적 위협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전략적 석유 보유량 비축이 지속될 것이며, 특히 중동에서 주로 원유를 수입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비축률은 계속 높아질 것임.
 - 산유국들은 국제 유가가 곧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믿고 있으므로, 석유 공급량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데 이 역시 국제유가 고가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결국 석유 수입국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산유국 특히 정치적 안정을 보이고 있는 산유국들이 작금의 사태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임. 항공산업계 역시 어려움에 처할 것이며 테러 위협 때문에 장기 관광, 특히 이슬람 지역에 대한 관광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산유국으로 자본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이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지원하는 제품 공급 국가들은 고유가 사태에 따른 혜택을 볼 것임. 즉,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공급국인 일본과 유럽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임.

(문의처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ckchoi@skynet.be)